

전문직 동료관계에서의 윤리적 딜레마

2118052 이해천 (발표, 자료조사)
2218006 권정민 (PPT, 자료조사)
2218063 조창희 (자료조사)
2218072 홍석민 (자료조사)
2218074 조한주 (자료조사)



목차



서론

01 | 사회복지기관의 조직 윤리

02 | 조직의 규정 준수

본론

03 | 동료관계와 윤리적 딜레마

- 동료사회복지사와의 윤리적 딜레마
-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의 윤리적 딜레마
- 그 외 다른 전문직들과의 윤리적 딜레마

결론

04 | 영상자료

05 | 토론주제

01

사회복지기관의 조직 윤리



사회복지기관의 조직 윤리

사회의 모든 조직은 윤리규범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조직의 생산품을 구매하는 고객과 조직의 상위체계인 사회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특히 사회복지 기관은 재정이 공공에 기반하고 있고, 취약계층에게 휴먼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그 어떤 분야 보다 높은 윤리경영의식이 요구된다. 사회복지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클라이언트의 존엄성과 인권존중, 재무회계의 투명성, 사회공헌 등을 실천한다.

02

조직의 규정 준수



조직의 규정 준수

모든 조직은 구성원이 따라야 할 정책과 규정이 있다. 규정과 정책이 없다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같은 조직 내에서 일관성 없는 업무처리 방식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에게 '기관의 정책과 절차를' 따르고 서비스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을 요구한다. 동시에 조직의 정책과 규정이 부당하거나 윤리적 실천을 방해할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도 요구한다. 그러나 조직의 모든 규정과 정책 그리고 법이 언제나 사회복지 가치와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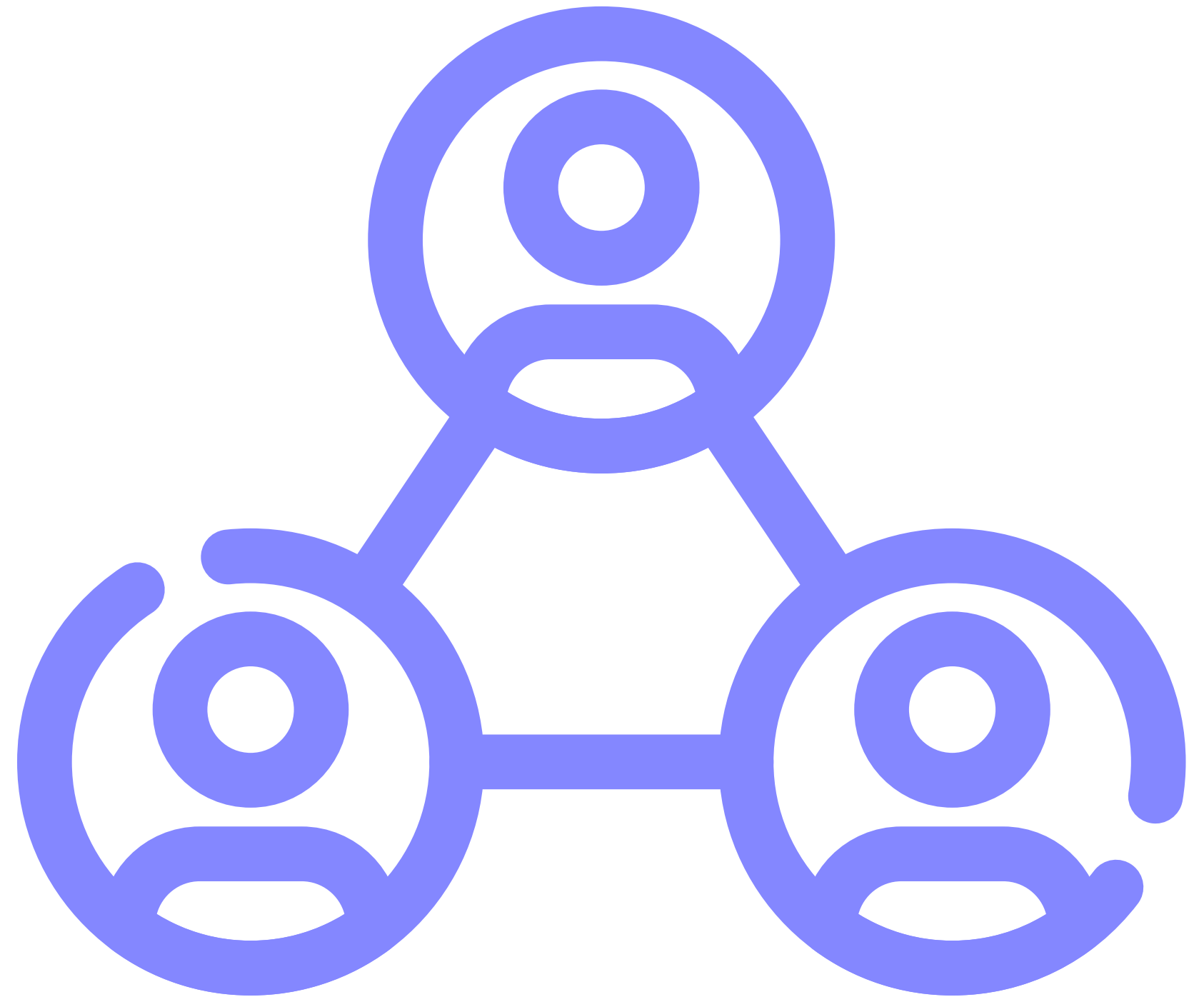
만약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법을 위반해야 한다면, 이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한가? 즉 위험에 처해있는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법이나 기관의 규정을 위반한다면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가? 부당함에 맞서기 위해 혹은 더높은 수준의 선을 위해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일은 흔한일이다.

예를 들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진행하는 지하철 시위가 대표적이다. 모든 것은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규정과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조직의 규정에도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상반되는 상황에서 동료관계와의 윤리적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다.

03

동료관계와 윤리적 딜레마



동료관계와 윤리적 딜레마

동료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였거나 무능력이나 심각한 결함으로 인해 클라이언트에게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경우, 그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의무이다. 대부분 윤리강령에도 동료의 결함, 무능력,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사회복지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내부고발,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동료관계와의 윤리적 딜레마 사례이다. 직장 내 동료가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했을 때,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이 바로 내부고발이다. 내부고발자는 조직 내 무능력, 비윤리적 행동, 불법행동을 찾아 그것을 멈추도록 하기 위해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보고하는 자를 의미 한다. 내부고발이 언제나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전문가로서 책임을 다한 것은 인정되나, 조직 내 문제를 일으킨 자로 인식되어 '절반의 영웅, 절반의 문제아'로 남게 된다. 한마디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다**는 말이다.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문제를 제기할 경우, 오히려 동료와 조직을 배신한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대부분의 조직구성원들은 이러한 음모가 두려워 잘못 되고 있는 바를 더 이상 알려 하지 않거나, 가십 정도로 무시하거나 축소하려 한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295명을 대상으로 동료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조사한 결과에서 '공식적으로 처리한다'는 응답은 17%에 불과했다. 이처럼 문제가 발생해도 그것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다. 내부고발로 인한 윤리적 딜레마는 사회복지사 동료, 슈퍼바이저, 그외 다른 전문직들과 윤리적 딜레마를 발생시킬 수 있다.

동료사회복지사와의 윤리적 딜레마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

<동료>

- 사회복지사는 존중과 신뢰로서 동료를 대하며 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인격을 훼손하는 언행은 하지 않는다.
- 사회복지사는 동료의 윤리적이고 전문적인 행위를 촉진시켜야 하며 이에 반하는 경우에는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대처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내 다른 구성원이 행한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제반 법률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동료사회복지사와의 윤리적 딜레마 예시 사례

같은 대학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들인 B, L, M은 원하던 치료간호정신병원에서 일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병원은 사법기관에서 의뢰된 정신장애인을 치료하는 곳이다. 이들은 현재 6개월 수습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 이들 모두 잘 적응하며 일하고 있지만 특히 L은 능력이 뛰어나 직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3개월이 지나 오랜만에 세 친구는 뭉쳐서 한잔하기로 했다. 수다를 떨던 중 L이 클라이언트 중 한 명과 연애를 시작하였다는 사실을 얘기하였다. 그 환자는 폭력전과를 가지고 있고 진단은 약물중독과 반사회적 인격장애이다. M은 L이 몹시 걱정되었으나 B는 둘 다 성인이므로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

M은 졸업논문으로 클라이언트와의 성적 관계의 비윤리성에 대한 것을 썼기에,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고 있다. M은 환자의 폭력전과로 인해 L의 안전도 걱정되었으며, L로 인해 수습직원뿐 아니라 기관과 사회복지 전문직의 이미지까지 나빠질까봐 걱정이 된다. 무엇보다 이런 경우, 보고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옳다는 윤리강령을 잘 숙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M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윤리적 딜레마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

<슈퍼바이저>

- 슈퍼바이저는 개인적인 이익의 추구를 위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 슈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책임을 수행하며 사회복지사 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한 평가는 저들과 공유해야한다.
-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지도와 조언을 존중해야하며,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업무수행을 도와야 한다.
- 슈퍼바이저는 사회복지사 수련생 및 실습생에 대해 인격적, 언어적,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저의 윤리적 딜레마 예시 사례

L은 대학을 졸업하고 지난 20년 동안 가족상담기관에서 일해 왔고, 15년 전부터는 초심 자들과 학생들에게 슈퍼비전을 주고 있다. 그녀는 정신분석을 공부하였고 이 치료모델이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믿고 있다. 물론 그녀의 기관은 현재 단기치료를 선호하고 있지만 그녀는 그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그녀는 현재 학생 M에게 슈퍼비전을 주고 있는데, M이 과연 좋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런 상황이다. M은 첫날부터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이 학생 신분임을 밝혔다. 그러나 L은 학생이라고 하면, 클라이언트가 치료능력을 의심할 수 있으므로 숨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M은 클라이언트에게 인지행동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L은 이것이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직원들이 모두 참여한 사례회의에서 M이 사례를 발표할 때, L은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였고, 이제까지 맡았던 학생들 중 가장 최악이라고 평가하였다. L은 이 모든 것이 M의 개인적 문제 때문이라 판단하였다. M이 어릴 적 학대 경험이 있고 최근 남자친구와 헤어진 것이 이러한 문제의 증거라 하였다. 그러면서 L은 M에게 자신에게 치료받을 것을 권했다. 이 과정에 어떤 윤리적 이슈들이 존재하는가?

그 외 다른 전문직들과의 윤리적 딜레마

- 다학제 간 팀의 구성원인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직의 관점, 가치, 경험을 가지고 클라이언트의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참여하고 기여해야한다.
- 다학제 간 팀의 결정에 윤리적 우려가 있을 경우 사회복지사는 적절한 경로를 통해 불일치가 해결되도록 시도해야 한다.
- 만일 불일치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안녕에 부합되도록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는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그 외 다른 전문직들과의 윤리적 딜레마 윤리강령

사회복지사는 동료 및 타 전문직 동료의 직무 가치와 내용을 인정, 이해하며 상호간에 민주적인 직무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 교사와 갈등

: 변호사와 갈등

: 의료 전문직과의 갈등

그 외 다른 전문직들과의 윤리적 딜레마 예시 사례

<교사와 사회복지사와의 윤리적 딜레마>

S는 4학년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조용한 학생이다. 성적은 낮은 편이다. 사회 복지사 Y는 S와 그 가족을 잘 알고 있다. S의 어머니는 AIDS를 앓고 있으며,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 S는 종종 학교에 오지 못한다. S는 아직 어머니의 진단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Y는 담임이 S를 좀 더 잘 이해하고, 학업을 도와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 S의 상황을 알려주었다. 그러나 담임은 같은 반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S의 어머니가 많이 아파서 S가 힘들어 하니 신경써주라고 하였다.

Y가 담임에게 S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그녀의 상황을 학생들에게 얘기했느냐고 묻자 친구들의 도움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다행히 엄마의 진단은 얘기하지 않았다. Y는 S를 돕기 위해 담임에게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옳았던 것인가?

그 외 다른 전문직들과의 윤리적 딜레마 예시 사례

<변호사와 사회복지사와의 윤리적 딜레마>

아동보호기관의 법률지원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W는 8세 아동 T의 엄마 S의 친권상실심리를 대신해주고 있다. S는 사무실에 T의 동생 B (5세)를 데리고 왔다. 그런데 W는 B의 팔목에 멍이 들은 것을 발견하고 S에게 물었더니, 자전거 타다 넘어져 생긴 상처라 하였다. 그러나 W는 아동학대를 의심하였고 이를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W는 아동학대를 의심하였고 이를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W는 아동학대를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S의 자녀 T와 B의 안전도 염려된다. 그러나 변호사는 오직 S의 승소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경우 W는 아동학대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04

영상자료





*해당 이미지는 예시 이미지입니다.



05

토론주제



A 양(여, 12세)은 생후 1개월만에 아동복지시설 앞에 버려져 직원의 발견으로 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A 양은 7세가 되던 해에 양부모에게 입양되었지만 기존 자녀들과의 마찰로 인해 1년 5개월 만에 파양되어 시설로 돌아왔다. 이후 9개월뒤 다시 2차 입양이 되었는데 또 다시 파양되었다. A 양은 두 번의 파양으로 인한 상처가 커서 입양되는 것이 두려워 거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기관이 좋아서 남겠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기관에 남겠다고 하는 것은 입양은 가기 싫고 갈 곳이 없으니 마지못해 있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아이의 담당자는 아동의 불안을 고려하여 입양을 반대한다는 판단을 하였지만 기관장은 이번을 마지막 입양기회로 생각하고 입양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의견을 내며 서로 상충된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사례를 기반으로 동료관계에서 서로 다른 가치판단으로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THANK YOU

